

전남도·울산시 “국가산단 국세 지역 환원해야”

공동성명... 7개 상생발전 협약 “세금 97% 국가귀속·지역재원 부족” “사고·환경오염 등 주민보호 시급”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전남도와 울산광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에 한목 소리를 내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김희재·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관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사·도의 공조는 대규모 화학산단에서 유독가스 누출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주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지만, 폭발·화재,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 (12조 4216억원)가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양 사·도는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석유정제저장시설·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가 산단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양 사·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두겸 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양 사·도는 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전문가 7명을 초청, 지자체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국가산단단지 지역은 시설 노후와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형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

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분석·토의하고 과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울산시와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선안 모색

광주시의회는 22일 ‘광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센터 직원들의 생활임금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오영순 광주남구의원, 박정진 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연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서대필 광주시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장이 토론

자로 참여했다.

노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을 생활임금제 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임금 부족분 보전, 전 직원 호봉 재산정,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여부 등 식약처 지침을 참고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박희을 시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보전을 통한 일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다른 사·도와 형평성이 맞고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대상을 발굴·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광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됐다.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 안전·영양 지도 현장 방문, 어린이 급식용 영양 식단·요리법 제공, 조리 종사자와 어린이(부모) 영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광주·전남 18개대학 정원 중 3029명 미달

광주 9개 대학 1554명
전남 9개 대학 1475명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 통틀어 전체 정원에서 3029명이 미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3학년도 추가모집 발생 대학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9개 대학에서 1554명, 전남 9개 대학 1475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사·도 추가모집 발생 지역 중 4위와 5위에 기록됐

으며 1위는 경북 16개학교 2889명, 부산 12개 대학 2144명, 전북 9개대학 1842명이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상위 5개 지역이 전체 추가모집의 56.8%(9904명)을 차지해 지방대학이 학령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추가 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상위 대학 30개교 중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4개교·3개교 등 총 7개 대학이 포함됐다.

한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들은 오는 28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노병하기자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모아미래도(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봉산(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3년 02월 08일 개최된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회사는 합병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3. 02. 20.
'갑'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200111-0154199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서정오
'을' 주식회사 봉산 200111-0461180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경남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3. 3. 8 (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3. 3. 1 (수) 오후 7시.
· 장 소: 상 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고흥, 담양, 보성
인 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 (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